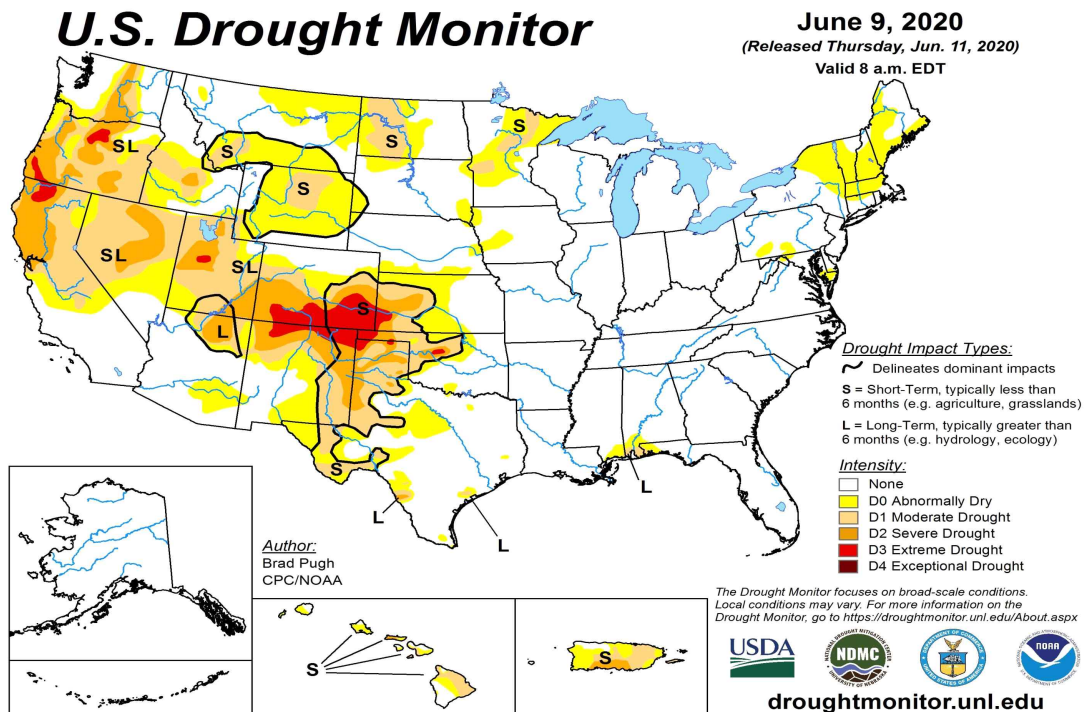


6월 16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7, No. 24)

□ 미국 기후 현황(6/7~6/13)

열대성 폭풍 ‘크리스토타’ 이 6월 7일 오후에 미시시피 강 입구 근처에 상륙하여 6월 10일 오대호 지역 위쪽 부분을 가로질러 대략 북쪽으로 이동했다. 크리스토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강우대는 비교적 좁았지만 한랭전선 하나와 상호작용하면서 북부 평원과 중서부 위쪽을 가로질러 강우 면적이 더 넓어졌다. 중서부 위쪽에 내린 대부분의 강우는 옥수수, 콩, 기타 봄-파종 작물들에게 유익했지만 미시시피 계곡 하반부에는 과도한 습기 포켓들이 계속 머물러 있었다. 습한 조건들이 루이지애나에서 플로리다까지 멕시코만을 따라 동쪽으로 확장되었다. 북서부를 제외한 다른 많은 지역들은 건조한 날씨를 겪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에서 남부 평원으로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고 오하이오 계곡을 중심으로 한 넓은 지역도 마찬가지였다. 후자의 지역에서는 수분이 여름 작물에 대체로 적당했지만 전국 남서쪽 사분면 대부분에 걸쳐서 가뭄이 계속 확대되고 강화되었다. 미국 중부 전 지역에 걸친 더운 날씨가 작물의 발달 속도를 촉진했지만 표토의 수분은 줄었다. 열기가 북부 평원 전체에 대체로 유익했는데, 이곳은 초기에 다소 늦게 파종하면서 출현과 성장이 느렸던 곳이다. 중서부 위쪽의 주간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최소 5° F 높았고 미국 중부와 동부의 다른 많은 지역에서는 평년보다 약간 높았다. 반면에, 남부 캘리포니아 연안을 제외하고 서부 전역에 걸쳐서 서늘한 조건이 우세했고 뉴 잉글랜드 북부는 계속 서늘했다. 그레이트 베이슨 및 인근 지역 일부는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5° F 이상 낮았다.



### □ 농업 현황 요약(6/8~6/14)

중부, 대서양 중부, 남동부 지역은 평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우세했다. 대평원 일부와 미시시피 계곡 중부는 평년보다 5° F 이상 높았다. 반면에, 미시시피 델타, 그레이트 레이크, 뉴잉글랜드 및 텍사스의 대부분은 기온이 평년보다 낮았다. 서부 대부분도 평년보다 낮은 기온을 겪었다. 특히, 캘리포니아, 네바다, 유타 일부는 기온이 평년보다 6° F 이상 낮았다. 전국 대부분이 계속해서 비교적 건조했지만, 지난주 상반기 중에 루이지애나에 상륙해서 미시시피 계곡과 오대호 지역을 지나 북쪽으로 이동한 열대 폭풍 ‘크리스토타’의 경로를 따라서 평년보다 더 많은 양의 비가 내렸다. 아칸소, 미조리, 아이오와 및 위스콘신 일부에는 총 3인치 이상의 비가 내렸다. 또한 멕시코 만과 남대서양 연안 일부에도 최소 3인치의 비가 내렸다.

### □ 세계 기후 현황(6/7~6/13)

■ 유럽: 대륙의 대부분에 광범위한 소나기가 계속 내렸는데, 서부 재배 지역은 평년보다 시원했지만 대조적으로 동부는 평년보다 기온이 높았다. 유럽 북동부에 머물러 있는 고기압이 폭풍이 그 지역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서 대부분의 재배 지역은 한 주간 5~80 mm의 비에 간헐했다. 그 수분은 서유럽에서 늦게 종실비대가 되는 겨울 작물들에게 유익했고 동부 재배 지역에서는 생식기-종실비대기 중인 겨울 곡류들과 유지작물들의 수확량 전망을 상승시켜주었다. 그러나 잉글랜드 남부에 내린 비 (4~20 mm)는 심한 가뭄을 누를 만큼 충분하지는 못했다; 90일 강우량은 평년의 절반 수준에 미치지 못했고 겨울 작물들은 종실비대-성숙중이어서 회복 시점을 이미 지나버렸다. 대조적으로 이번 주 이전에 비슷한 수준의 90일 강우량 결핍을 겪고 있었던 헝가리에는 지역적으로 많은 호우가 내려서 (55 mm 가량), 영양기 옥수수과 해바라기는 물론이고 좀더 늦게 발달하는 겨울 작물들에게 도움이 되었다. 서유럽과 남유럽 대부분은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2~5° C 낮았지만, 동부 재배 지역은 지난 주 선선한 기간이 지난 이후에 평년보다 최대 5° C 높았던 평균 기온이 겨울 작물의 성숙과 여름 작물 발달을 가속화시켰다.

■ 구소련(서부): 점점 더워지고 있는 날씨에 소나기와 뇌우가 동반되었지만 몇 주간 비가 내린 후에 러시아 중서부와 우크라이나 북부는 다시 유리한 건조 상태로 돌아왔다. 러시아 서부에는 일정 면적의 고기압이 정착하면서 대부분의 지역에 며칠간 온건하거나 극심한 열 (32~38° C, 평년보다 최대 8° C 높음)을 더하였다. 그러나, 겨울 밀은 대부분 온도에 민감한 생식기와 초기 종실비대기를 지났고 밀 재배지 중에 많은 곳들이 이전 30일 동안 평년 강우량 대비 100~250%의 비가 내린 혜택을 받았다. 또한, 흑해 연안에서 북서쪽으로 퍼지고 있었던 약하거나 적당한 소나기 (2~17 mm)가 러시아의 북카프카즈 지구에서 우크라이나 남동쪽까지 잠재적인 열의 영향을 더욱 완화해주었다. 6월 12일 현재, 이 지역의 기온이 더 선선해지면서 최고 기온은 높은 20도대로 다시 완화되었다. 한편, 소나기와 뇌우가 고지의 북쪽 주변을 가로질러 우크라이나 서부와 벨라루스 북부에서부터 동쪽으로 러시아의 중부와 불가 지구까지 영양기의 봄 곡류와 여름 작물들에게 10~100 mm (지역적으로 더 많이)의 비를 내려주었다. 이 수분은 국지적이기는 했지만 급성 단기 건조 (60일 강우량이 평년의 60% 미만)로 인해 봄 곡류의 발달이 영향을 받기 시작했었던 러시아 중부에서 특히 환영을 받았다. 여름 작물들 (옥수수, 해바라기 및 콩)은 영양기에 있어서 그 열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



■ 동아시아: 중국 동부에 소나기가 광범위하게 내려서 여름 작물들에게 필요한 수분 공급을 상승시켰다. 북동부의 주요 옥수수 및 콩 지역 전체에 내린 강우량은 10mm에서 지역에 따라서 50mm 이상으로 다양했다. 그러나 길림성 동부와 북한을 포함한 주변 지역은 대체로 건조한 날씨가 만연했다. 또한, 건조 지역이 북중국 평원의 북부 지역으로 확대되어 밀 수확에 도움이 되었다. 한편, 북중국 평원 남부에서부터 최남단 성들까지 강한 소나기 (50~100 mm 이상)들이 보고되었다. 그 수분이 겨울 작물의 수확 작업은 늦추었지만 여름 작물을 위한 수분은 양호하게 유지했다. 일주일의 끝날 즈음에 열대성 사이클론 ‘누리’가 다가오면서 광둥성에서 가장 높은 수치의 강우 총량 (200 mm 이상)을 보여주었다. 남한에는 소나기가 증가했고 일본의 남부 절반에 내린 50 mm 이상의 비가 벼의 활착을 돕고 있었다.

■ 호주: 서호주에 내린 산발적인 소나기 (대체로 5~10 mm)가 밀, 보리 및 캐놀라의 초기 발달에 도움이 되었다. 대조적으로, 대체로 건조한 날씨가 호주 남부와 동부에 있는 밀 벨트를 뒤덮으면서 최근에 출현한 겨울 곡류와 유지작물이 이용할 수 있는 표토의 수분을 줄였다. 표토 수분은 대체로 적당하였고 대부분의 주요 작물 생산 지역에서 이른 철 수확량 전망이 양호하게 유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밀 벨트가 심각한 장기 가뭄에서 계속 회복되면서 양호한 이른 철 작물 전망을 유지하려면 꾸준한 강우가 필요하다. 평균 기온이 남동부는 평년보다 2~3° C 낮았고 서부와 북동부는 평년보다 1~2° C 높았다.

■ 아르헨티나: 건조한 날씨로 모든 주요 농업 지역 내에서 여름 작물의 수확과 겨울 곡류의 파종 속도가 계속 빠르게 유지되었다. 라 팜파와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부터 북쪽으로 볼리비아와 파라과이와의 국경들까지의 사이에 있는 대부분이 장소들이 완전히 건조했고 불과 몇 군데 고립된 장소들에만 5 mm 이상의 강우가 기록되었을 뿐이었다. 라 팜파와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남쪽 구역들은 주간 평균 기온이 평년 부근이었지만 더 먼 북쪽은 평년보다 최대 4° C 낮았다; 코리엔테스처럼 먼 북쪽은 낮 최고 기온이 20° C에 못미쳤다. 그런 선선한 날씨 때문에 겨울 곡류의 출현이 늦어졌고 지난 주에 시기적절하지 않게 내린 비를 맞아 수확되지 못한 면화는 건조가 늦어졌다.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6월 11일 현재 옥수수는 72% 수확되어 작년 속도 (60%)보다 앞섰고 콩 수확은 98%로 거의 완료되었다. 면화는 89% 수확되어 작년 속도 (63%)보다 25 포인트 이상 넘어섰다. 마찬가지로 밀 파종도 작년 속도 (작년의 30% 대비 43% 파종)보다 훨씬 앞섰다.

■ 브라질: 오래도록 내리는 소나기가 브라질의 남부 농업 지구에 늦철 수분을 추가로 공급했고, 한편 먼 북쪽은 계절적으로 더 건조한 상태들이 우세했다. 파라나 중부에서 남쪽으로 우루과이 북부까지 내린 총 강우량은 10 mm에서 지역적으로 25 mm 이상이었다. 평년 부근에서 평년보다 높은 기온 (낮 최고 기온이 높은 섭씨 20도대까지 올라가고 밤 최저 기온은 대체로 영상에 머무름)이 미성숙한 옥수수와 출현 중인 밀의 성장을 도왔다. 파라나 정부에 따르면 2차 작물 옥수수는 6월 8일 현재 3% 수확되었고 남은 작물의 77%는 종실비대기-성숙기 중에 있었다; 밀은 79% 파종되었다. 6월 11일 현재 옥수수는 리오 그란데 도 술에서

98% 수확되었고 밀 파종은 진행 중인데 주 차원에서의 통계치는 제공되지 않았다. 상 파울로 동부와 북동부 해안을 따라 내린 몇몇 국지적인 소나기 (지역적으로 25 mm 이상)를 제외하면 브라질의 다른 주요 농업 지역들은 계절성 건조와 따뜻함이 우세하여 2차 작물 옥수수와의 면화의 빠른 발달을 촉진했다. 2차 작물 옥수수는 6월 12일 현재 마토 그로소에서 8% 수확되었다고 보고되어 5년 평균 속도와 같았으나 작년 수치 (17%)보다는 뒤쳐진 것이었다.